

지금 이 순간의 자유

| 용타스님 |

마음공부의 핵심은 지금 이 순간 어떤 경계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함을 향유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 허무와 고통과 마음의 경계들을 어떻게 넘어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18부)

073. 수행修行 Before and After 2

* 돈망 복습: 돈망명상을 간단히 복습하고 오늘의 주제로 들어갈까 한다. 돈망頓忘의 본질은 ‘그냥 있음으로 무한 오케이’라 했다. 그냥 있으면서 ‘무한 오케이(니르바나)’가 되려면 그냥 있으면 되고, 기초수를 수용하면 되며, 아공법공我空法空으로 깨어있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다~~~’하면서 그냥 있는 것을 실습해야 하고, ‘기초수를 그대로 수용한다~~~’하면서 기초수를 수용하는 것을 실습해야 하며, ‘아공법공我空法空이니 걸림 없이 그냥 깨어있는 것이 할 일 전부이다~~~’하면서 또한 이를 관행해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 어느 임계선에 이르면 느낌으로 무한감無限感을 경험한다고 했다. 이 경험이 길어야 한다는 집착은 금물이라고 했다. 그 경험이 극히 짧다 하더라도 돈망파지頓忘把持라고 했다. 어떤 이들은 그 좋은 경계가 오래 지속되어야 할 게 아니냐고 호소하기도 하는데 그런 호소는 이들이 그 짧은 경험도 아직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물지도를 들고 들어가 한 번 그 무한한 보물들을 발견한 사람은 보물 전부를 짚어지고 나올 필요가 없다.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보물을 찾아 헤매지만 한 번 발견한 사람은 헤맬 필요가 없다. 헤매야 하는 사람과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무한無限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와 한 번 경험해버린 자의 차이이다. 오직 돈망삼관頓忘三觀을 원인으로 해서 얻어낸 무한감無限感이니 언제라도 돈망삼관을 재생산(거듭 반복하는 관행)하면 될 뿐이라고 몇 차례이고 이야기 해왔다.

돈망을 파지把持하기 위해서는 돈망삼관이면 족하다. 그러나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다. 돈망 3관 외에 최소한의 인문학이 더해진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돈망 살림을 위해서나 돈망을 주변에 알리기 위해서나 좋을 것이다. 지난 호에서도 일렸듯이 이처럼 공부인들이 서로 Before and After를 돌아보면서 나눈다면 이런 나눔은 또 하나의 인문학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 극단(極端)의 고통: 수행이란 무엇일까? 선호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답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수행을 이야기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지금 여기 이 마음이 어떤 경계에든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답한다. 해탈이란 무엇일까? 역시 다양한 답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해탈을 이야기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지금 여기 이 마음이 어떤 경계에든 걸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답한다. 나는 수행해 오면서 '만일 나에게 지극히 강도 높은 신체적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경우가 닥친다면 어떻게 그 고난(苦難)을 이겨낼 수 있을까?'하는 철학적 테마에 걸려 있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걸림이 사유(思惟)를 통해서 깨끗이 해결되어 버렸다. 즉 그 테마를 들고 있을 때는 마음의 완전한 자유감이라는 차원에서 항상 한 조각의 어두움을 느끼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 극단의 고통과 관계된 어두움이 없는 자유함 속에 산다는 것이다.

사람은 살다가 보면 극단적인 고통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 고통은 심리적일 수도 있지만 신체적일 수도 있다. 내 경우는 심리적인 고통이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인 고통은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물리적 혹은 사회적 차원의 재난(災難)으로 불가피하게 당하게 되는 극단적(極端)인 고통이 다가왔을 때 어찌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영성적(靈性的)인 사유(思惟) 주제가 되었다. 예컨대 종교적으로 순교(殉教)적 상황에 처하거나, 정치적으로 양심(良心)을 지켜야 할 상황에 처하여 극단

적인 고통이 다가오는 상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철학적인 사유 주제를 화제話題로 내놓았을 때 “현실로 있지도 않을 일을 왜 신경 쓰느냐?”는 식의 힐문詰問을 들은 일들도 있다. 그 힐문이 그럴싸하게 들릴지 모르나 영성적으로 보다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려면 심리적으로 걸리는 일들이 적을수록 좋은 법이다. 어찌 연구와 사색의 주제가 눈앞에 당도한 현실에만 국한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석가모니는 먼 훗날에 올 노병사老病死에 관심을 기울여 대각大의 문을 여셨다. 그 은덕恩德으로 석가모니 이후 무수한 각자覺者들이 쏟아져 나왔다. 에디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에디슨을 전후하는 몇몇 발명가들은 미래에 전기가 끌어올 편의시대를 내다보면서 보다 편리한 발전發電 기술 개발을 위해 열정을 바쳤기에 오늘날 우리는 불야不夜의 세상을 살게 된 것이다.

19세기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가 꺾이는 사람은 진정한 대인大人이라 할 수 없다. 용기가 꺾이는 경우는 사람들에게 대한 체면 때문이거나 극단적인 고통을 이겨낼 의지가 없기 때문이니 평소에 인간관계에서 체면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나아가 고통 때문에 지조志操가 꺾이지 않을 수 있도록 깊은 명상冥想으로 부동不動의 덕성을 함양涵養해두어야 한다.” 에머슨의 이런 발언은 인품을 지향하는 뜻 지성인에게 대단히 고무적鼓舞的인 말씀이다.

아무튼 신체적인 고통에 의해서 정신적인 주체성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서는 내심 허용되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허공같이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 공부인 차원에서 볼 때 그런 상황에 대한 개운한 대응 대안이 없이 산다는 것은 어두운 그림자 한 자락을 지니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자연히 ‘극단적인 신체적 고통이 나

의 현실로 다가왔을 때 어찌할 것인가?’하는 것은 나의 중요한 사유思惟 주제가 되었다. 진정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여기 이 마음, 이 의식意識에 깨어있어야 하며, 일말의 부정적 흐름도 용납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나부끼는 불편 정서들을 쉽게 허용하면서 이런 것이 인생이야 하는 사람은 니르바나를 지향하는 공부인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평소 신념이다. 이것도 결국 가치관의 문제이지만, 불편不便 염체念體를 허용하는 가치관을 지닌 사람은 일단 마음 공부인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미세번뇌微細煩惱까지 다 정화해야 하는 것이 수행자의 태도이거늘 지금여기 현재의식으로 출렁이는 어두운 염체念體를 하염없이 짚어지고 다닌다면 어찌 수행자라 하라 하는 것이 평소 나의 기 신념의 하나임을 밝힌다.

좌우지간 ‘죽음’ 주제보다 더 어려운 주제였던 ‘극단고통極端苦痛’ 주제가 해결된 것은 나의 수행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었다. 자, 여러분은 어떠한가? 여러분이 지금 시뻘쭙게 달구어진 인두로 고문을 당하는 성삼문처럼 극단적인 고난 상황에 있다고 상상한다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겠는가? 나는 이 질문 앞에 답을 모른 채 한 세월을 막연하고 답답하게 살았다. 무엇이나 알고 보면 간단한데 모르면 복잡하고 막연한 법이다. 이 물음 역시 사색思索의 진척이 더디어 몰라서 답답하고 막연하던 시간이 흐르다가 어느 순간에 답이 간단하게 다가왔다. 답은 세 단계였다. 일단 고통이 심해진다면 자연발생적으로 아비규환阿鼻叫喚과 같이 울부짖게 될 것이다. ‘극도로 아프니 울부짖는 것이다.’가 한 단계의 답이다. 울부짖음이 고통을 완화시킨다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될까 궁금할 수도 있겠다. ‘주의분산注意分散의 원리’이다. 아들 때문에 태산 같은 근심으로 끙끙거리고 있는데 친구가 방문했고,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은 아들 일을 잇는다는 이치이다. 그리고 ‘그 아픔이 더 심해져서 도저히 그 이상은 참을 수 없다’ 할 상황에 이르면 생명의 자기보호 원리에 의해 의식을 잃을 것이다.’가 두 번째 단계의 답이다. 나아가 답 하나가 더 있다. ‘내 인생에 그러한 상황은 없을 수 있다.’가 세 번째 단계의 답이다. 어떠한가? 그럴싸한 감이 드는가? 살아있는 삶의 철학 차원에서 수년간을 답을 얻지 못해 답답해하던 한 수행자가 그 사색 주제를 그렇게 사유하면서 시원해져버렸다는 것을 공감할 사람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 진정 회심(回心)의 미소가 지어진다.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난다. 무엇이 마음공부인가 하는 설문을 던진다면 각양각색으로 답들이 나올 것이다. 나에게 그 설문이 다가온다면 최우선적인 답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이 경계에 걸리지 않고 자유함을 향유하는 것’이다. 공부인들마다 선호하는 순서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마음공부길이라 하면 팔정도(八正道), 육바라밀(六波羅蜜), 37조도품(三七助道品) 등으로 정리하여 말하고 그 모든 수행법들을 셋으로 요약 정리하면 삼학(三學)이다. 계(戒)학이란 자타의 모든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요, 정(定)학이란 마음을 고요하게 안정시키는 것이며, 혜(慧)학이란 마음이 대상을 바르게 이해하여 걸림이 없는 것이다. 공부인은 스스로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 중 각각 어느 것을 더 우선시하는지, 삼학 각각에 에너지 안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살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여기 이 마음의 걸림 없는 자유함’을 소홀히 여긴다면 일단 신비주의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고 보면 된다.

* 허무(虛無) 극복 1: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행의 과정에 큰 걸림이었

던 허무가 수용受容되어 버림으로써 나의 자유감은 가히 고공高空을 나를 수 있었다.

나에게 있어서 ‘죽음’, ‘극단고통極端苦痛’, ‘허무虛無’ 등 세 가지 큰 걸림 중에서 허무가 제일 난코스였다. 사람의 삶이 죽음이나 지구의 빙하기나 혹은 우주의 종말 등으로 인해 완벽한 무의미로 끝나버린다면 진지하게 인품을 함양涵養하고 보살도를 닦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허무가 기다리고 있는 인생, 허무가 기다리고 있는 지구의 역사, 허무가 기다리고 있는 우주일 가능성이 없지 않을 터, 내 인생과 우리의 문화문명이 허무의 나락으로 다가가고 있을 수 있다고 볼 때 허무는 진정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달리고 있는 활주로 저 편에 나락奈落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은 일단 1/2이지 않는가! 이 허무의 가능성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즉 허무의 가능성 앞에 나의 마음은 편안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팔정도의 정사유正思惟는 역시 방편 중의 방편임을 무수한 곳에서 수궁하게 된다. 나 역시 사유의 힘으로 허무가 극복되었다. 자, 사유해보자. 왜 허무가 그토록 싫은가? 허무虛無와 실유實有라는 두 개념을 놓고 실유를 애착(집착)하기 때문이다. 곧 실유에 대한 애착을 놓으면 실유와 허무는 평등해진다. 공空철학과 유식唯識철학은 불교 사상의 양대축兩大軸이라 할 만큼 중대 사상이다. 나에게 있어서 공空철학의 공리空理와 유식唯識철학의 유식무경唯識無境 등의 사상을 어느 정도 수궁하고 있다는 것은 한 복福이라고 늘 생각해 왔다. 공철학 차원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실제實體적인 실유實有를 이야기할 수 없는 법이다. 유식철학 차원에서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실유성實有性을 떨 수 없는 법이다. 나는 공리空理로 보나 유식唯識으로 보나, ‘있다’고 이야기 하는 모든 존재들이 실유實有가 아니고 허상虛像일 뿐이요 표상表象일 뿐이라는 것을 깨

달음으로써 허무와 실유 사이에 불평등의 간극(間隙)이 없음을 확연하게 수궁하고 허무에 대한 불안(不安)은 사라져버렸다.

* 허무(虛無) 극복 2: 무위법(無爲法)을 깨닫고, 무위법 차원에서 허무를 관조하면서 허무에 대한 불안(不安)의 염체(念體)를 해결하여 시원해진 것은 한 세월 전이다. 그런데 나에게 허무(虛無)라 일러도 될 만한 걸림이 또 있었다. 공자(孔子)라는 한 사람의 영성가(靈性家)를 예로 들어보자. 공자님의 인생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사람들의 삶을 영성적으로 고양시켜주셨을 것이며 나아가 공자님으로부터 영향 받은 사람들은 또 주변에 영향을 끼쳐서 공자님의 인품의 영향이 천년만년 갈 것임은 충분한 사실로 믿어진다. 그런데 공자님의 인품에서 풍겨 나온 밝은 에너지(氣)가 물리적인 공간에 긍정적인 의미로 존재해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 문제를 다른 각도로 이해해 보자. 인류의 역사가 있는 한, 공자님 인품의 향기는 역사의 끝까지 따라가면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믿어진다. 그러나 지구 전체를 덮어버리는 전면 빙하기를 맞는다거나 혹은 태양계 전체가 종말을 맞는다거나 나아가 성주괴공(成住壞空)의 순환 과정 중에 우주 전체가 공겁(空劫)을 맞는다고 할 때 공자님의 인품의 기운은 어디에 의미로 남아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만일 그 지경에는 어디에서도 그 흔적(痕迹)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떤 성자의 기운도 잠정적인 의미가 있을 뿐 끝내는 허무의 나락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나아가 모든 사람의 존재의미는 잠정적(暫定的)인 일시성(一時性)의 운명을 면치 못하는 것이니 진정 허무한 일이다.

나는 우주적 기도를 할 때, “무한 우주에 있는 유형무형(有形無形) 유정무정(有情無情) 모든 존재들의 행복해탈(幸福解脫)과 맑고 밝은 상생기운(相生)

氣運을 위하여 나의 전 존재, 전 에너지를 보내오니 무량한 복덕福徳이 향상되소서!” 하고 기도하곤 한다. 한 세월 기도를 할 때마다 일말一杼의 허무감이 늘 따라붙곤 했었다. 물질物質이라 하거나 에너지라 하는 것은 에너지 불변不變의 법칙이나 에너지 보존保存의 법칙 등이 수궁으로써 무상성을 넘어서서 그 영원성이나 무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어지지만, ‘사람의 인품의 향기라는 에너지(?)는 어떠할까?’가 참으로 긴 세월 문제 하나였다. 이 문제 역시 지금은 주관적인 내 의식세계에서 깨끗이 해결되어 영성적인 차원의 경사慶事를 맞고 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문제가 제기될 때부터 정답은 바로 나와 있었지만 그 확연성確然性이 100%로 차오르지 않고 세월이 흐르다가 부끄럽지만 세상 나이 70이 한참 지나서야 확연성確然性 100%가 되었다. 진정 쾌거가 아닐 수 없고, 8정도의 제 2 방편인 정사유正思惟에 지극한 감사를 올리게 된다.

그 확연성確然性의 실체實體가 궁금할 것이다. 천하가 유형이든 무형이든 에너지로 되어있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다. 사람의 마음 공간도 결국 에너지가 짝 차있다고 하는 것도 상식이다. 그 에너지가 탁濁해질 수도 있고 청정淸淨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상식이다.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에너지의 청탁淸濁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도 상식선에서 믿어진다. 사람이 마음을 진실眞實하고 성실誠實하고 자비慈悲로운 쪽으로 운용運用하면 마음의 기운(에너지)이 그 진실과 성실과 자비에 상응하는 에너지로 변할 것이요, 망령妄靈되고 나태懶怠하며 난폭亂暴한 쪽으로 운용運用하면 마음의 기운(에너지)이 망령妄靈과 나태懶怠와 난폭亂暴에 상응하는 에너지로 변할 것이라는 것도 당연하다. 공자님은 마음을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쪽으로 운용했을 터, 공자님의 인품에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기운이 가득했을 것이요, 공자님

주변의 공간에는 일파만파—波萬波로 맑고 밝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기운이 스며들어 갔을 것이다. 나아가 지구의 종말, 태양계—은하계—우주의 종말이 온다 해도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나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 우주의 에너지는 어떤 양태樣態로든 존재할 것이요 공자님이 한생 같고 님은 덕성의 에너지도 어떤 양태로든 우주 에너지의 한 부분으로 존재할 것이며, 다시 이어지는 그 다음의 우주에 고스란히 그 생성 요소가 되어 드리날 것이다.

우주 공간에는 1000억~2000억 개의 항성恒星으로 구성된 은하계가 1000억~2000억 개 정도 떠다난다고 한다. 곧 우주에는 100해核 내지 400해核(1,000,000,000,000,000)의 항성恒星이 있다는 것이다. 1000억의 항성, 1000억의 은하계로 계산하면 우주에는 100해核의 항성이 있는 것이다. 항성 100만개에 지구와 같은 문명이 있는 행성이 1개만 있다고 해도 우주에는 1경京(1,000,000,000,000)개의 문명성文明星이 있게 된다. 1경京 개의 문명성文明星에 있는, 지성知性을 갖춘 고등동물高等動物이 일거에 영성적靈性的으로 몇 단계 성숙해버린다면 우주 에너지의 양장력良場力 수위가 꺾충 뛰어 오를 것이라 상상해보는 것은 신나는 일이다. 우리 태양계의 지구에 사는 ‘나’라는 인간이 하루 하루 인품을 고양시킴으로써 우주의 양장력 고양에 기여한다고 생각해보면 또한 어떠한가!

혹여, 그런 생각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바를까를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줄 안다.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하다면 좋을 것이고 또 혹은 어떤 정평 있는 전문가의 말씀에서 전거를 끌어올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지론의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내 마음이 더 행복해진다면 좋고, 또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이웃의 행복을 위해 내 마음이 더 착해지고 착한 행동이 더 늘어난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굳이 대가의 말씀을 끌어와야 한다면 칸트의 실천이성비판을 참고하라고 권하고 싶다. 마음속에 올라오는 걸리는 것들을 사유^{思惟} 등으로 해결하여 탁 트인 열린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진정 복된 일이다.

* 사람에 대한 적의감^{敵意感} : 사람의 행복^幸불행^{不幸}을 논의함에 있어서 사람과 관계되는 상황이 고려될 것임은 당연하다. 자신의 의식^{意識} 공간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적의감^{敵意感}들이 있다는 것은 진정 걸림이요, 걸리는 정도만큼 불행한 일이다. 적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두 명 밖에 안 된다 해도 마음 한구석이 쾌청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나의 은인^{恩人} 목록에 황의만이라는 이름이 들어 있다. 황의만은 나의 고등학교 시절의 친구이다. 고등학교 일학년 수학시간이었다. 선생님께서 수학 문제 하나를 칠판에 적어 놓으시고 풀 자신 있는 학생은 나와서 풀어보라고 하셨다. 한참을 지나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가 백목을 들고 문제의 답을 써 내려갔다. 선생님은 정답에 적중한 것을 칭찬하시고 나가셨다. 그런데 선생님이 나가시자마자 교실 맨 뒤에 앉아 있던, 반에서 늘 깡패 노릇을 하는 황의만이 걸어오더니 실내화를 벗어들어 “조그마한 새끼가 공부를 잘해!” 하면서 내 뺨을 몇 차례나 때렸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지만 비겁하게 반격을 가하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었던 나는 ‘황의만, 너 이놈의 새끼, 기필코 주먹으로 복수해주마!’ 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그 날로 태권도 도장에 등록을 하였다. 한세월을, 비겁하게 불의에 즉각 반격을 하지 못한 스스로의 나약함에 대해 씹고 또 씹으면서 자책했다. 황의만은 한동안 원수처럼 느껴지는 걸림이었다. 그러던 나는 세월이 지나 태권도 유단자가 되었다. 유단자가 되고 보니 황

의만에 대한 복수심보다는 어떤 연민憐愍이 마음 한구석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황의만으로 인해 시작한 태권도는 내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의미가 되었다. 태권도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5단이 되면서 내 몸에는 항상 그 어떤 신체 대결 상황에서도 천하무적일 것 같은 호연지기가 서려 있었다. 태권도로 인한 신체적 카리스마가 평생 나와 함께 동행해주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황의만은 나에게 감사의 대상으로 떠오르곤 했다. 50대가 지나고 60대가 되어 문득 내 생애에 나의 은인이라 할 만한 사람 10명 정도를 정리하던 중 황의만이 적혀짐을 보고 회심승心の 미소가 지어졌다. 수행의 Before and After를 정리함에 은인 목록의 황의만을 거론하게 되는 것은 왜일까? 원수로 여겼던 황의만을 감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겠지만 은인恩人으로까지 떠올리는 것은 수행 차원의 명상 결과이기 때문이다. 인생을 사실학이 아닌 해석학으로 생각할 때, 바로 ‘해석解釋’은 수행 차원의 ‘사유思惟’인 것이다. 사실에 있어서는 원수怨讐(?)인데 은인恩人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은 정녕 수행修行의 공덕이라 여기면서 기쁘기 그지 없다.

* 해원解冤: 사람의 삶이란 순경계順境界와 역경계逆境界의 교차과정일 것이다. 순경계가 많을수록 행복하다 할 것이요 역경계가 많을수록 불행하다 할 것이다. 문제는 역경계이다. 역경계는 그 정도에 따라 다양한 트라우마Trauma(정신적 외상)로 시달리게 된다. 사람이면 대체로 태어나서부터 못한 역경계를 접하면서 정신적 상처투성이가 되어있는 것이 누구나의 심리적인 현실일 것이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니다. 기억되는 상처, 혹은 기억되지 않는 상처로 남 못지않게 시달려온 인생이다. 동사섭同事攝이라는 수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오면서 내

자신이 동사섭수련프로그램의 제1 수혜자受惠者라고 늘 생각하곤 했다. 해원解冤이라 하면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을 풀어버리는 것이다. 나는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 아니 깨끗이 없고 영원히 없을 것 같다. 동사섭의 여러 방편 덕택이겠지만 특히 ‘나지사’(구나-졌지-감사의 약자)라는 툴tool 덕택이다. 평생의 기억 속에 들어 있는 역경계들을 공책에 기록하고 낱낱이 ‘나지사’ 툴로 씻고 씻어버렸다. 깨닫고 보면 역경계逆境界라는 말이 성립되는 상황 자체가 없는 법이다. ‘나지사’는 단순한 수행 방편이 아니고 사람의 의식이 고양되는 과정에 일어나는 깨달음이다. 지금은 문득문득, 금생에 있었다 싶은 모든 역경계라 할 만한 것들과 천생 만생에 걸친 전생에 있었다 할 수 있는 무수한 역경계들과 내내생생來來生生에 있을 수 있는 모든 트라우마들을 한 상자 안에 모아 놓고 ‘나~~~지~~~사~~~’해본다. 참으로 시원한 해원解冤을 경험한다. 나아가 ‘번뇌즉보리煩惱卽菩提~~~’해본다. 천하가 본래청정本來淸淨이요 여여실상如如實相임을 깊게 수궁首肯하면서 관행觀行한다. 마음이 개운해져버린다. 환희롭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수행修行의 Before and After 차원에서 조망眺望되는 파적破寂의 향연饗宴이다.

* 우월감優越感 : 나는 가끔 주변 사람들에게 성공을 원하느냐고 묻는다. 모두 그렇다고 답한다. 다시 나는 성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답들을 한다. 그때 나는 성공의 정의를 바로잡아 준다. 성공成功이란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스스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즉 실패했다고 생각하면서 불행해 한다. 실패했다고 여기면서 불행해하는 것보다는 성공했다고 여기면서 행복해하는 것이 분명히 더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

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성공했다고 인정하는 것 같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 왔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냥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까지는 그나마 통과시킬 수 있겠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상황에서 문제가 생긴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러워하고, 나는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어떤 만족감 같은 것을 느끼는 경우가 바로 그런 상황이다.

현재 나를 죽을 때까지 시봉하겠다고 하는 상좌가 있다. 물론 그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공간에서 먹고 자고를 함께 하고 있는 시봉 상좌와의 관계 상황에서 ‘그는 나를 부러워하고 나는 스스로 만족해한다’는 것과 같은 경우는 중대한 걸림이다. 그냥 혼자 만족해하는 것은 허물이 아닐 것 같다. 그러나 관계 상황에서의 만족감은 우월감일 수 있다. 솔직히 나는 열등감을 별로 느끼지 않고 살아왔지만 우월감 또한 거의 느끼지 않고 살아온 것 같다. 그러나 누군가와의 관계 상황에서 느끼는 만족감 속에 잠복해 있을 수 있는 우월감優越感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할 때는 자신이 없었다. 즉 ‘나는 내 시봉 상좌보다는 더 성공했어.’와 같은 느낌이 100.00% 없느냐 할 때 양심적으로 ‘100.00% 없어!’라고 함에 쾌청하지를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있어!’는 아니었지만 ‘없다!’함에 깨끗하지 못한 스스로의 심리를 직면하면서 내 마음은 은근하게 부끄럽고 쓸쓸해졌다. 나를 평생 모시겠다고 마음먹은 사람과의 관계 상황에 ‘나는 너보다 좀 나아!’ 식의 우월감, 진정 침을 뱉고 싶었다. 이것은 참으로 중대 착오가 아닐 수 없다. 중대한 ‘걸림’인 것이다. 걸림이란 평정심平靜心에서 이탈된 심리 일반이 아니겠는가! 이는 진정 불쾌한 일이다. 불쾌를 문득문득 느끼면서 사유思惟 작업에 들어갔다. 보조 선사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지리산 상

무주암上無住庵에서 한철 결제정진을 하고 나오셔서 “내속에 한 번뇌가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원수를 집안에 두고 사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번 철 상무주암 결제로 그 흑을 정리해버렸다!”라고 고백하셨다고 한다. 진정 공감이 가는 말씀이다. 나는 천하의 그 어떤 것에도 ‘나’, ‘너’, ‘그것’ 식의 실체성實體性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깨닫고 있는 것 같다. 나아가 수련장에서 공수를 깨닫는 길을 27가지나 가르치고 있다. 그런 터이기에 더욱 부끄럽고 쓸쓸했다.

연기고공緣起故空, 불가득공不可得空, 자연고공自然故空, 원시고공遠視故空 등의 길은 어렵지 않다. 오로지 그러한 이치를 깊이 관행觀行하기만 하면 불평등한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정화되어버림을 확연하게 체험할 수 있다. 관행觀行, 관행觀行, 관행觀行! 관행이 어느 정도 깊어지고 있을 때 우월감優越感 등의 불평등 의식이 사라져버렸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우월의식이 없이 사람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나는 잘 안다. 사람은 성공 여하나 실패 여하에 관계없이 평등하다.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평등의식이 천하 인민의 기초정서基礎情緒가 되면 좋으리라. 대자연大自然의 어느 구석에 잘난 놈, 못난 놈이 있는가! 중중연기重重緣起하는 우주의 어느 자락에 불평등이 들어설 자리가 있는가! 미망迷妄에 걸려든 인간만이 열등으로 춥고 우월로 우쭐해한다.(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용타 스님** | 1964년 청화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6년부터 1974년까지 고등학교 독일어교사로 교단에 섰으며, 1974년부터 1983년까지 20안거를 성만했다. 미국 삼보사 회주, 성문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재단법인 행복마을 이사장으로 1980년도부터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해탈을 위하여 ‘동사섭’이라는 마음공부 프로그램으로 32년 동안 수련회를 개최해왔다. 저서로는 『꽃, 공을 깨닫는 27가지 길』, 『마음 알기·다루기·나누기』, 『10분 해탈』 등이 있다.